

# 보도자료

<b>보도일시</b> 2026. 4. 3(금) 조간 * 방송, 통신, 인터넷은 배포시부터	<b>배포일시</b> 4. 2(목) 08:30
<b>담 당</b>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장욱진 부장(053-524-2118), 박혜경 차장 (053-524-2507)	

## “고유가 시대, 노란우산이 주유비 쏩니다” 온라인 프로모션

- 4월 한달 간 PC·모바일로 노란우산 가입시 5만원 주유 쿠폰 증정 -
- 26.1분기 대구지역 노란우산 가입자수 전년동기比 13.4% 증가 -

-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(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 성태근)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4월 한달간 ‘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’을 진행한다고 4.2(목) 밝혔다.
  - 소기업·소상공인 대표가 4.2(목)부터 29(수)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규가입 시 5만원 주유 쿠폰을 받을 수 있다.
    - 이번에 지급되는 주유 쿠폰은 국내 주요 정유사 브랜드(SK에너지·GS칼텍스·에쓰오일·HD현대오일뱅크)를 아우르는 통합 구성으로, 이용자가 선호 브랜드와 주유소 접근성에 따라 편리하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.
- 노란우산은 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경영위기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현재 재적 가입자 187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·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.
  - 대구지역 2026년 1분기(1~3월) 노란우산 가입자수는 3,83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(3,384명) 대비 13.4% 늘어나, 어려운 경제상황에 노란우산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-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(연 최대 600만원)은 물론 납입 원금에 연복리 이자가 적용돼 목돈 마련에 용이하고,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위기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.
  - 노란우산 ‘희망장려금’도 놓치면 안 되는 혜택 중 하나다. 올해 대구 지역에서 지원하는 희망장려금은 총 9.5억원으로 대구지역 소상공인이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준다.
- 또한, 2026년 2분기(4~6월) 노란우산 기준이율은 3.2%로 0.2%p 인상되었으며, 폐업·사망 시 지급되는 이율도 기존 3.3%에서 3.5%로 상향되는 등 납입한 부금 적립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  - 여기에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연계 대출과 신한은행, 기업은행 및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시 노란우산 가입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.
- 성태근 대구경북중소기업회장은 “이번 프로모션이 일시적이지만 힘든 시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길 바라며 또한 노란우산이 항상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  - 한편, 본 프로모션과 노란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([www.8899.or.kr](http://www.8899.or.kr)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(053-524-2507)로 문의하면 된다.

붙임 : 프로모션 포스터 1부. 끝.